

50억 중에 하나뿐인 존재

박종대

박종대 씨는 취산 선생과 20년 지기이며 한국에 가족이 없던 선생님께서 국내에 계실 때 자신의 집에서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신 분입니다.

취산 선생 덕분에 장가를 들었고 그분을 한 가족으로 함께 산 것만도 몇년—
오랜 인연으로 살아오면서 취산에 대한 추억이야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양이지만 그중에서도 선생님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적는 것으로 그분에 대한 추모글을 대신할까 한다.

1980년대 초 여름 내(박영철)가 지리산 등반 때 있었던 일이야.

그 당시 일행이 전주의 젊은 친구들 20~3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누만.

산행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되었을 게야. 충북 청주에서 온 대학생 두 명을 만났는데, 산이라 그런지 쉽게 우리와 합류를 했지. 마침 우린 인원에 비해 텐트가 부족했는데, 그들은 상당히 큰 텐트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좋았지.

그런데 청주에서 온 대학생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지 않았겠어. 바깥 세상에 나오면 서로 잘 어울리는 법인데 별난 놈이구나 했지.

나 역시 젊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다 보니 지치고 피곤해서 신경쓰기도 싫었고, 아무튼 힘들었어.

좁은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한쪽은 좀 가파른 지형이었는데 발이 뭔가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아래로 구르지 않았겠어. 간신히 나무 뿌리가 뭔가를 붙잡아 위기를 면했는데,

“와, 절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데, 그동안 “감사합니다” 많이도 해왔지만 이번 게 제일 진짜 같더라구.

하산하기 전날 밤에 막걸리 파티가 벌어졌는데, 난 피곤해서 텐트에 누워 있었지.

텐트 입구를 열고 기름처럼 떠돌던 친구가 스웁 들어오더라 말이지.

‘너 이놈 잘 왔다.’ 내 속으로 생각했어.

“저,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막걸리나 마시지 할 말이 뭐이야?”

“산에 오면 마음도 편해지고, 어쨌든 저 자신이 좀 변할 걸로 기대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미치겠습니다.”

“뭐이가?”

그 친구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했을 거야. 아마.

부모님과 주위 사람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지.

결과는 뻔하지 뭐. 시험은 계속 낙방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대 취급만 받고.

지옥이 따로 없었던 게지.

그러다 군대 오라는 영장이 나오고 3년 잘 있다 제대하니 사회 분위기가 대학 졸업장은 필요한 것 같아 대학

을 들어갔다는구만. 나 만났을 때가 청주 무سن대학 경제학과 2학년이라고 했지. 집은 군산에서 양조장을 한 다니간 생활은 괜찮았던 모양이야.

대학 입학 후 그 혼해빠진 미팅 한번 못했다는 게야.

고교 때 일로 해서 누룩이 들었는지 자격지심인지, 참 딱해서...

“그래, 편히 있어. 제대하고 2학년이라고 했으니 스물예닐곱살은 된 놈이, 너도 임마 졸업 후 취직하고 장가도 갈 생각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대답은 잘한다. 그럼 너 예물로 다이아 반지에, 가싼 줄 알지만 외제 시계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겠죠.”

“너,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싼 줄 알어?”

그 친구 잠깐 생각하더니만

“아마 희소가치 때문이겠지요.”

“야! 너 경제학과 다닌다더니 알긴 아는구나. 바로 그거야. 다른 이유 없어.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야. 하나만 더 물어보자.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

“글쎄요, 한 50억 정도 될까요?”

“그래, 50억쯤 된다 치자. 그럼 그중에 너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예?!”

“너는 말이야. 50억분의 1의 존재야. 귀하기로 따지면 다이아몬드가 대수야!”

그 친구,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만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나가서 막걸리나 마셔. 나 피곤해.”

“그런데 선생님,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점에 가면 <생명의 실상>이란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 봐.”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놈을 다시 불렀지.

“너, 말이야. 니가 정말 귀한 존재인 줄 알면 남도 귀한 줄 알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황이야, 임마.”

“예.”

다음날 아침, 첫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로 오는데, 승객이 거의 우리 팀뿐이더라 말이지. 마침 버스 안에 오디오 시설이 되어 있었어. 한 친구가 나서더니 자기가 사회를 볼 테니 노래를 부르면서 가자고 하더니 기사 양반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한 곡을 부르고는 마이크를 돌리더구만. 기름 같던 그 친구가 세 번쨌나 네 번째로 지목을 받았는데,

허, 참, 주저없이 일어나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잘 불러. 훌륭해.

아마 전날 밤 나한테 한 소리 들었기 때문 아니겠어.”